

“지식·정보화시대 창의성·모험심이 관건”

새로 맞는 시대에는 한민족 화합과 통일 등 이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영광과 좌절의 역사로 점철됐던 혼돈의 1천년대는 저물고 새로운 2천년대의 태양이 떠올랐다.

신경북일보는 세계적인 포항공과대학교 정성기 총장과 신라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고도의 경주대학교 한정곤 총장, 본지 서동훈 논설실장의 신년 대담으로 새천년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서동훈 실장=21세기를 1년 남겨놓은 세기말 1년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세기말 10년 동안에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20세기 말에 있었던 변화들을 되돌아보다면...

▲정성기 총장=서기력은 Gregorian Calendar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AD 첫해를 0으로 하지 않고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2001년이 21세기의 시작인 것은 옳습니다.

재미난 것은 컴퓨터에서는 0과 1을 기본으로 하는 디지털 상태를 활용하는데, 서기력을 만든 수도사들이 0 대신 1부터 시작했다는 점과 소위 말하는 Y2K문제는 처음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연도 표시를 '1970' 대신 '70'으로 하는 등 천년이나 30년을 내다보는 것은 하나같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세기말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기술의 개발을 꼽을 수 있겠지요. 인간의 존재에 큰 영향을 미친 과학·기술로는 아무래도 핵무기의 개발과 복제기술의 출현일 것입니다.

▲한정곤 총장=20세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반도체의 발명이지요. 이는 컴퓨터의 보편화 가능성을 열어준데 그 동안 인간이 갖고 있던 제한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의사결정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순식간에 논리적으로 그것도 잔값에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사고영역(Bounded Rationality)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서동훈 실장=전 세계가 뉴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고 이를 예측하는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정성기 총장=제조업, 통신기술, 의학기술 등에는 인류 복지를 향상시키는 많은 신기술이 개발·활용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경제적인 부가 창출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인간복제는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한 인간생활의 명암교차는 핵에너지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국 인류는 개인적 창의성에서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기술들은 인간사회가 이를 유용하게 또는 파괴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있는가를 심각하게 테스트할 것입니다.

집단체로서의 인간사회는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안목과 지혜와 절제를 조속히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훈 실장=지금까지의 역사는 백인세력이 세계를 지배한, 유색인종은 노예로 살거나 멸종되는 역사였습니다. 서양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경제적 편익을 주기도 했지만,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도 낳았습니다.

▲한정곤 총장=서양문화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문화의 모범답안이 아니고, 따라서 지구상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동양사상에서 그 보완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는 동서양이 서로 보완해 제3의 모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 공급하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이들 원재료를 잘 가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혁신에 모범을 보이는 교수사회를 만들고 장려되게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서동훈 실장=과학기술의 도시 포항에 자리 잡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인 포항공대는 이미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연이어 내놓고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는 남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라는 정체성(Identity)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의 보존 발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미리 예견해 경주대학교는 문화유산의 보고에 뿌리를 두고 한국관광대학으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부로부터는 문화 관광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3년 연속 선정됐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동훈 실장=경주의 중심산업은 역시 관광산업인데, 관광상품을 개발할 여지는 매우 많다고 봅니다. 문화유산은 관광상품을 개발할 아이디어의 보고(寶庫)라고 하는데...

▲한정곤 총장=경주와 로마를 세계 관광시장에 함께 내놓으면 어느곳에 더 관광객이 몰릴까요? 솔직한 이야기지만, 현재의 문화유적만으로는 다른 세계적 문화유산과 비교해 열세인데, 이를 어떻게 보완하느냐.

문화유적과 관계가 없는 지역은 불거리, 놀거리를 위하여 과감히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포관광단지 조성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 과거와 현대를 함께 즐길 수 있을 도록 해야 합니다.

또 경주도시는 도시 포항, 대구, 울산에 있는 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도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동훈 실장=2000년은 용(龍)의 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임금의 자리를 용상(龍床)이라고 하고, 어려운 일을 이루어내고 중요한 위치에 오르는 것을 용문(龍門)에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에는 용문에 오른다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고, 우리의 의식구조도 바뀌어 할 것이고, 교육도 바뀌어야...

▲정성기 총장=교육개혁은 우리 의식구조와 사회운영 체계의 개선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신분이 보장된다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학습사회이며,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사회전체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포항공대의 교육은 이런 변화를 스스로 터득하고, 각자의 관심분야와 전문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필요한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고, 대학이 연구·교육·기술이전 등에서 좋은 모델과 모범이 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한정곤 총장=우리들의 의식변화에 대해서,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한마디만 할까 합니다.

상식(정신)이 통하지 않고 편법(몹수)이 판을 치는 사회가 우리사회라고 하면 너무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편법이 난무하니 신뢰가 없어져서, 국가기관이 하는 이야기도 국민들이 항상 뒤집어 본다든지, 반대로 해석하는 습관이 생겼지요.

햇수를 제시하고, 과시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편에게 무비판적으로 편들다보니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제 보릿고개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되었으니 거품을 빼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조금씩만 솔직해지면 됩니다. 새 천년에는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동훈 실장=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참고 될 탁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곽성일기자]



포항테크노파크 지역민 사랑뎌 성공 확산 동·서양 상호보완 '제3의 모형' 창조해야 편법 판치는 우리사회 합리적 상식으로 극복을

분명하므로 대학의 생산성과 세계적 경쟁력이 국가사회의 경제력과 직결될 것입니다.

▲정성기 총장=포항공대는 신기술의 이전과 실용화의 초기단계까지를 대학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이전과 지적 재산권을 관장하는 팀, 창업보육센터, 기술투자회사 등을 이미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실장=경주는 1천년간 신라의 도읍지였고,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는 노천박물관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몇되지 않는 인류 전체의 유산인데, 이를 보존 발굴 연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만...

▲한정곤 총장=노천박물관이 개발논리에 밀려 이미 훼손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노력들의 결과입니다.

-서동훈 실장=포항테크노파크가 본격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에는 포항공대가 절대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정성기 총장=포항테크노파크가 설립되면 이와 연계해 포항과 인근지역이 하이테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차원에서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테크노파크의 성공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의 생산과 이의 활용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애정을 갖고 포항공대를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신다면 테크노파크는 성공확률

謹賀新年

희망찬 새해에는 모두가 한마음 되고 화합하여 새천년을 맞이 합시다

- 홍익고공업주식회사
-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 송종봉 상무이사 이강희
- 주식회사화인테크
- 주식회사왕표화학
- 포항축산기계제조조합 조합장 박남용
- 慶北버스運送事業組合 理事長 李桂淳 副理事長 金世韓 副理事長 金明錫 專務理事 金漢錫

